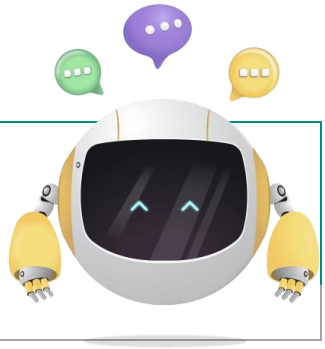
Tech&Stock Weekly

2026.04.24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알파벳,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알파벳(GOOGL.US):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8세대 TPU 2종 출시

- 구글이 TPU 8T(훈련용)와 TPU 8I(추론·RL 전용) 2종을 분리 출시. 기존 Ironwood 단일 아키텍처에서 탈피해 워크로드별 특화 구조로 전환
- TPU 8T는 단일 팟 9,600칩, FP4 기준 121 ExaFLOPS로 Ironwood 대비 2.8배. 공유 메모리 2PB 확보로 프론티어 모델 훈련 시간 단축 목표
- TPU 8I는 팟당 1,152칩·11.6 FP8 ExaFLOPS로 256칩 Ironwood 대비 9.8배 성능. 온칩 메모리 캐시로 long-context decoding의 메모리 병목을 해결 시도
- Virgo 네트워크로 13.4만 TPU 칩을 47Pb/s로 연결, 100만 칩 단일 클러스터 운영 가능해짐. NVIDIA Vera Rubin NVL72도 퍼스트 무버로 제공, Virgo에서 GPU 최대 96만개 확장 지원

인텔(INTC.US): CPU 수요의 구조적 부활과 공급 제약 해소로 턴어라운드 본격화

- 1분기 매출 135.8억 달러, EPS 0.29달러 기록하며 컨센을 각각 9%, 2800% 상회하며 어닝서프라이즈 시현
- 2분기 가이던스 매출 138~148억 달러 (컨센 130억), EPS 0.20 달러 (컨센 0.08)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 상회
- 1)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는 서버 CPU 수요 강세이나 공급 제약으로 업사이드 제한을 예상했으나 DCAI 매출 예상치 상회하며 AI 사업군이 YoY 40% 성장, 전체 매출 60% 차지.
- 공급 제약 이슈 여전히 유효하나 재고 활용, 수율 개선, 외부 파운드리 활용 등으로 예상대비 더 많은 물량 출하 가능했음.
- 2)시장에서는 GPM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나 예상치 크게 상회. 시장에서 우려한 요인은 신규노드 램프 초기에 수율이 낮고 고정비 부담, 시장가 웨이퍼 가격 전환, Foundry 적자 지속 등이며 GPM을 가이던스(34.5%) 수준 혹은 소폭 상회 예상. 실제 결과는 41%를 기록하며 가이던스 +650bps 초과
- GPM 개선된 주요인: ① 예상 대비 높은 출하량 ② 재고 활용 ③ 제품 믹스 개선 ④ 가격 인상 ⑤ 18A 수율 내부 목표 상회
- 2Q26 GPM 가이던스는 39%로 1분기 대비 소폭 하락 예상. 18A 물량이 6~7배 증가하기 때문. 하반기에는 메모리, 기판, 글라스 등 원자재 비용 상승이 GPM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나 수율 개선, 믹스 최적화로 상쇄 추진. GPM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
- 3)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당초 수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 수요가 훨씬 높음. 분기 중 수주잔고 추가 성장, 말레이시아 백엔드 시설 다년 확장 계획 발표. 2027년부터 매출 전환 예정
- 4) CPU TAM 자체의 구조적 확대를 강조. 시장에서는 AMD와 ARM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 제기되었으나 인텔은 CPU TAM 확대에 따른 수혜 강조.
- CPU: GPU 비율이 학습(1:8) 에서 추론(1:4), 에이전틱(1:1 또는 역전) 방향으로 변화 중
- 5) Capex는 전년대비 동일 수준이나 설비 투자는 +25%. 공간 투자는 대폭 축소하고 웨이퍼 생산 직결 장비 투자를 집중 확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확충 의지 반영

IBM(IBM.US): 1Q26 실적 기대치 상회했으나 연간 가이던스 유지

- 1분기 매출 159.2억 달러(예상치 156.2억), 조정 EPS 1.91 달러(예상치 1.81)로 시장 예상치 상회
- 26년 매출 연간 가이던스는 지난 분기 제시한 '성장률 5% 이상'을 유지하며 상향조정하지 않은 점과 1분기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이 8%로 전분기 11% 대비 둔화된 점이 시장을 실망시키며 주가하락
- 소프트웨어 성장 둔화에 대해 경영진은 계절성 요인을 이유로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연간 가이던스를 10%+ 로 상향조정했으나 Confluent 조기 통합에 따른 인수효과이며 유기적 성장에 대한 우려 상존

인튜이티브서지컬(ISRG.US):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 우려 해소는 아직

다빈치 로봇수술 & 다빈치5 신규 설치 기대치 상회

- 1분기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와 신규 설치 대수 모두 기대치를 상회. 전체 수술 건수는 YoY 17% 증가했으며 다빈치 로봇 수술은 16% 증가, 연간 가이던스(13%~15%) 상단을 상회. 미국에서 다빈치 수술건수는 14% 증가했으며 일반외과 수술 증가가 주요인. 해외는 19% 증가로 전분기 23%에서 둔화
- 해외 국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거나 견조한 추세 이어갔으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약세가 계속. 중국은 로컬사업자와 경쟁심화, 정책주도의 가격 압박 지속, 일본은 2025년 설치대수 부진과 공공병원 재정 부담 영향 때문. 다빈치 신규 설치 대수는 431이며, 다빈치5 신규 설치는 232대(미국 192대, 해외 40대)를 기록.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4분기(303)대비 하락했으나 전년동기(147)대비 크게 늘어나며 시장 기대치(210~220)를 앞서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서비스나우(NOW.US): 확인이 필요한 과도기

중동 분쟁과 계절성 영향으로 2분기 가이던스 기대치 하회

- 서비스나우는 AI 대체 위협에 대한 우려로 주가 부진을 크게 겪고 있는 대표 SaaS 종목. 1Q26 실적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신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
- 2026년 AI 매출 전망치를 기존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50% 상향조정하고 대형 계약 체결 등 AI 관련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구독매출과 CRPO 등 전사 외형 지표 상회 폭이 이전 추이에 미치지 못했음. 1분기 구독매출은 고정환율(CC) 기준 YoY 19% 성장,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했으며 CRPO는 21% 증가하며 가이던스를 100bps 상회
- 2분기 구독매출과 CRPO 성장 가이던스는 각각 21.5%, 19.5%로 컨센을 소폭 상회했으나, Armis 인수효과(125bps)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각각 20%, 19%)를 하회.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계약 타이밍과 계절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산정으로 이해되나 자체성장 추이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emini in Chrome 한국 포함 APAC 7개국 확장

- 구글이 4월 20일 자사 Gemini in Chrome 기능을 호주·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한국·베트남 등 APAC 7개국에 추가 배포한다고 발표. 1월 미국 첫 출시 및 3월 인도·캐나다·뉴질랜드 확장에 이은 공격적 글로벌 롤아웃 지속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첫 자발적 조기퇴직 프로그램 도입

- 1975년 창사 이래 최초로 미국 임직원 대상 일회성 voluntary retirement program을 도입. 나이와 근속연수 합산 70 이상(rule-of-70)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직원 중 약 7% 규모. 즉 미국 전체 125,000명 중 약 8,750명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 세부 패키지는 5월 7일 공개되며 30일 결정 기간 부여

아마존(AMZN.US): GLP-1 관리 프로그램 출시

- 아마존이 자회사 One Medical을 축으로 GLP-1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미국 전국 단위로 공식 출시. 200개 이상의 One Medical 오프라인 클리닉과 24/7 텔레헬스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 구조로 묶어 '만성질환으로서의 비만(obesity as chronic condition)' 관리 모델을 제시

메타(META.US): 전체 인력 10%·8천 명 감원 단행

-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 규모 감원을 5월 20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동시에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6,000개 포지션의 신규 채용도 중단

팔란티어(PLTR.US): USDA와 3억 달러 BPA 체결

- 미국 농무부(USDA)와 3억 달러 규모의 Blanket Purchase Agreement(BPA)를 체결하며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NFSAP) 이행을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 공급자로 낙점

오픈AI(비상장): GPT-5.5 공개

- 4월 23일 신규 플래그십 모델 GPT-5.5를 공개, 공동창업자 겸 사장 Greg Brockman은 "더 빠르고 날카로운 추론을 더 적은 토큰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GPT-5.4 대비 단위 경제성 개선을 부각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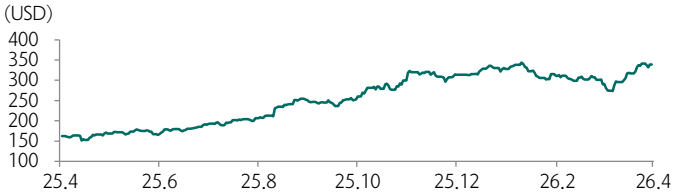
앤스로픽(비상장): 앤스로픽-트럼프 행정부 관계 해빙 조짐

- 앤스로픽이 펜타곤으로부터 외국 적대국에 주로 부과되는 supply-chain risk 지정을 받아 법정 대응 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의 직접 소통 채널이 오히려 강화

알파벳

상장 국가
미국
산업
플랫폼
시가총액(십억달러)
4,090

최근 주가 추이



알파벳(GOOGL.US):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8세대 TPU 2종 출시

- 구글이 TPU 8T(훈련용)와 TPU 8I(추론·RL 전용) 2종을 분리 출시. 기존 Ironwood 단일 아키텍처에서 탈피해 워크로드별 특화 구조로 전환
- TPU 8T는 단일 팟 9,600칩, FP4 기준 121 ExaFLOPS로 Ironwood 대비 2.8배. 공유 메모리 2PB 확보로 프론티어 모델 훈련 시간 단축 목표
- TPU 8I는 팟당 1,152칩·11.6 FP8 ExaFLOPS로 256칩 Ironwood 대비 9.8배 성능. 온칩 메모리 캐시로 long-context decoding의 메모리 병목을 해결 시도
- Virgo 네트워크로 13.4만 TPU 칩을 47Pb/s로 연결, 100만 칩 단일 클러스터 운영 가능해짐. NVIDIA Vera Rubin NVL72도 퍼스트 무버로 제공, Virgo에서 GPU 최대 96만개 확장 지원

Gemini Enterprise Agent Platform 전면화 및 파트너십 확대

- Vertex AI를 계승한 Gemini Enterprise Agent Platform을 출시. 기업이 자사 데이터·업무 시스템과 연결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글의 통합 플랫폼. 개별 직원이 자연어로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고, 회사는 수천 개 에이전트를 보안·거버넌스 하에 한 곳에서 통제하는 '에이전트용 관제탑' 역할을 하는 것
- Apple이 Gemini 기술 기반 차세대 Apple Foundation Model 공동 개발 파트너로 Google Cloud를 preferred cloud로 선정. 차세대 Siri에 탑재 예정
- 구글 클라우드에서 앤스로픽 Opus/Sonnet/Haiku를 전체 지원하고, Claude Opus 4.7까지 지원을 확장
- 구글 내부 신규 코드의 75%가 AI 생성(1년 전 50%), 고객사 75%가 구글 AI 제품 사용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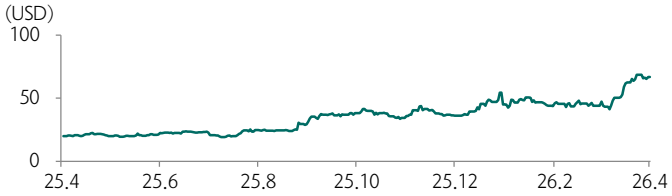
데이터 플랫폼 및 보안 영역 확장

- 데이터 분석용 엔진(Apache Spark)을 새로 만들어 공개. 같은 작업을 돌릴 때 업계 1위 Databricks보다 "돈 대비 2배 빠르다"고 주장. 인도 쿠팡격인 Flipkart, 미국 홈디포 경쟁사 Lowe's 등이 이미 사용 중
- Cross-cloud Lakehouse를 출시하여 데이터를 타 클라우드(AWS·Azure)에 그대로 두고 구글에서 바로 분석 가능하게 만듦
- 회사 안에 흩어진 엑셀·PDF·DB 데이터를 AI가 알아서 정리·연결 해주는 Knowledge Catalog 출시
- 작년 인수한 클라우드 보안 회사 Wiz를 공식 합병. AI 에이전트 전용 보안 기능을 붙여서 해커 역할 에이전트(Red)가 먼저 취약점을 찾고, 수리 담당 에이전트(Green)가 자동 픽스하는 자동화 보안 체계 구축

인텔

상장 국가
미국
산업
반도체
시가총액(십억달러)
340

최근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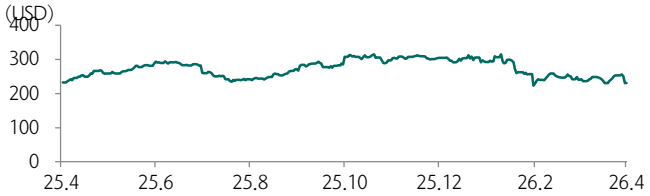
1Q26 Review: CPU 수요의 구조적 부활과 공급 제약 해소로 턴어라운드 본격화

- 1분기 매출 135.8억 달러, EPS 0.29달러 기록하며 컨센을 각각 9%, 2800% 상회하며 어닝서프라이즈 시현
- 2분기 가이던스 매출 138~148억 달러 (컨센 130억), EPS 0.20 달러 (컨센 0.08)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 상회
- 1)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는 서버 CPU 수요 강세이나 공급 제약으로 업사이드 제한을 예상했으나 DCAI 매출 예상치 상회하며 AI 사업군이 YoY 40% 성장, 전체 매출 60% 차지.
- 공급 제약 이슈 여전히 유효하나 재고 활용, 수율 개선, 외부 파운드리 활용 등으로 예상대비 더 많은 물량 출하 가능했음.
- 2)시장에서는 GPM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나 예상치 크게 상회. 시장에서 우려한 요인은 신규노드 램프 초기에 수율이 낮고 고정비 부담, 시장가 웨이퍼 가격 전환, Foundry 적자 지속 등이며 GPM을 가이던스(34.5%) 수준 혹은 소폭 상회 예상. 실제 결과는 41%를 기록하며 가이던스 +650bps 초과
- GPM 개선된 주요인: ① 예상 대비 높은 출하량 ② 재고 활용 ③ 제품 믹스 개선 ④ 가격 인상 ⑤ 18A 수율 내부 목표 상회
- 2Q26 GPM 가이던스는 39%로 1분기 대비 소폭 하락 예상. 18A 물량이 6~7배 증가하기 때문. 하반기에는 메모리, 기판, 글라스 등 원자재 비용 상승이 GPM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나 수율 개선, 믹스 최적화로 상쇄 추진. GPM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
- 3)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당초 수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 수요가 훨씬 높음. 분기 중 수주잔고 추가 성장, 말레이시아 백엔드 시설 다년 확장 계획 발표. 2027년부터 매출 전환 예정
- 4) CPU TAM 자체의 구조적 확대를 강조. 시장에서는 AMD와 ARM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 제기되었으나 인텔은 CPU TAM 확대에 따른 수혜 강조.
- CPU: GPU 비율이 학습(1:8) 에서 추론(1:4), 에이전틱(1:1 또는 역전) 방향으로 변화 중
- 5) Capex는 전년대비 동일 수준이나 설비 투자는 +25%. 공간 투자는 대폭 축소하고 웨이퍼 생산 직결 장비 투자를 집중 확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확충 의지 반영

IBM

상장 국가
미국
산업
IT
시가총액(십억달러)
236

최근 주가 추이



1Q26 실적 기대치 상회했으나 연간 가이던스 유지

- 1분기 매출 159.2억 달러(예상치 156.2억), 조정 EPS 1.91 달러(예상치 1.81)로 시장 예상치 상회
- 26년 매출 연간 가이던스는 지난 분기 제시한 '성장률 5% 이상'을 유지하며 상향조정하지 않은 점과 1분기 소프트웨어 매출 성장이 8%로 전분기 11% 대비 둔화된 점이 시장을 실망시키며 주가하락
- 소프트웨어 성장 둔화에 대해 경영진은 계절성 요인을 이유로 제시하고 소프트웨어 연간 가이던스를 10%+ 로 상향조정했으나 Confluent 조기 통합에 따른 인수효과이며 유기적 성장에 대한 우려 상존

메인프레임 AI 추론 플랫폼으로 전환

- 메인프레임 비즈니스에 새로운 수익원 추가. IBM이 자체 AI 칩 Spyre를 메인프레임에 넣어, 거래 처리하는 자리에서 바로 AI 추론까지 돌릴 수 있게 됨
- 대표적 사용예로 신용카드 사기 탐지 제시. 신용카드 사기 탐지는 원래 거래의 10%만 샘플 검사. 데이터 빼서 외부 서버로 돌리면 느려지기 때문. Z 위에서 직접 돌리면 전체 거래의 100%를 실시간 검사 가능. 사기율 0.1%p만 줄여도 대형 카드사는 수천만 달러 절감 가능
- Z17 첫 해 하드웨어 매출이 역대 최고였던 전작 z16 대비 10억 달러 이상 추가. MIPS(처리 용량) 출하량 4분기 연속 2배 성장. 장비 1달러 판매 시 소프트웨어·스토리지·유지보수로 3~4달러 추가 매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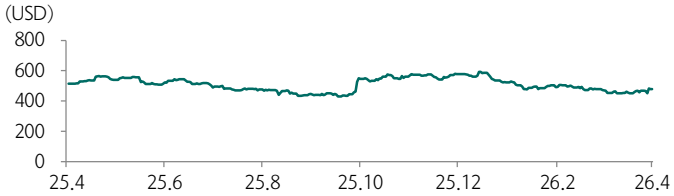
7년 간의 소프트웨어 리포지셔닝 성과

- IBM은 약 7년 전부터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음.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체하면 화면·UI 레이어의 가치는 떨어지고 밑단 데이터·비즈니스 로직 레이어가 돈을 벌 수 밖에 없음. IBM에서 소프트웨어에서 앱이라 부를 건 Maximo 하나뿐, 전체 4%. 나머지 96%는 전부 인프라성 소프트웨어(Red Hat, 데이터베이스, Confluent, HashiCorp 등). 대부분 사용량 기반 과금
- 세그먼트 별로 보면, Data +16%(FY 가이드 20%+ 상향, Confluent 반영), Red Hat +10%(OpenShift ARR $2B 돌파, VMware 대체 수요로 가상화 누적 $600M+), GenAI 소프트웨어 ARR $1.5B+ (+40% YoY). 다만, RHEL(Red Hat Enterprise Linux)만 메모리 공급난과 기업용 하드웨어 부진으로 역성장 중
- 현재 소프트웨어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기에, Confluent 통합 끝나면 대형 M&A 가능성 존재

인튜이티브 서지컬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의료
시가총액(십억달러)
160

최근 주가 추이



인튜이티브 서지컬(ISRG.US):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 우려 해소는 아직

다빈치 로봇수술 & 다빈치5 신규 설치 기대치 상회

- 1분기 다빈치 로봇 수술 건수와 신규 설치 대수 모두 기대치를 상회. 전체 수술 건수는 YoY 17% 증가했으며 다빈치 로봇 수술은 16% 증가, 연간 가이던스(13%~15%) 상단을 상회. 미국에서 다빈치 수술건수는 14% 증가했으며 일반외과 수술 증가가 주요인. 해외는 19% 증가로 전분기 23%에서 둔화
- 해외 국가 대체로 강세를 보이거나 견조한 추세 이어갔으나 중국과 일본에서는 약세가 계속. 중국은 로컬사업자와 경쟁심화, 정책주도의 가격 압박 지속, 일본은 2025년 설치대수 부진과 공공병원 재정 부담 영향 때문. 다빈치 신규 설치 대수는 431이며, 다빈치5 신규 설치는 232대(미국 192대, 해외 40대)를 기록.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4분기(303)대비 하락했으나 전년동기(147)대비 크게 늘어나며 시장 기대치(210~220)를 앞서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

매출 & 수익성 지표 기대치 상회, 다빈치5 포함한 신규 플랫폼 수익성 개선

- 1분기 매출 27.7억 달러(+23% YoY), 조정 EPS 2.50달러(+38%)로 컨센을 각각 6%, 19% 상회. 수술 증가 대비 매출 성장이 높은 것은 다빈치5 비중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효과와 교체거래 증가가 매출 성장에 기여. 항목별로 기기& 액세서리 매출 16.9억 달러(+23%), 시스템 6.5억 달러(+24%), 서비스 매출 4.3억 달러(+19%)
- 조정 GPM은 67.8%로 YoY 1.4%p 개선되었다. 관세 영향(-1%p)에도 원가 절감과 매출 성장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상승이 주효. 수익성 관련 주목하는 점은 다빈치5 시스템이 Xi 수준의 기여 마진을 달성했고 Ion도 평균에 근접, 신규 플랫폼의 수익성 개선 확다. 영업비용이 일부 타이밍 요인으로 예상보다 낮았으며 매출 성장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 확대로 조정 OPM은 39%를 기록, 컨센(34%)을 크게 웃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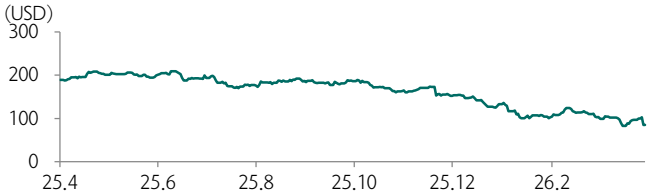
2026년 로봇수술 가이던스 상향조정, 경쟁심화 & 우려 요인 해소는 아직

- 1분기 강한 수술 증가와 설치 대수를 반영하여 2026년 연간 수술 증가 가이던스를 기존 13~15%에서 13.5~15.5%로 상향조정. 조정 GPM 가이던스는 기존 67~68%에서 67.5~68.5%로 올림. 관세 영향 추정치를 120bps에서 100bps로 소폭 내렸으며 원가 절감 진전을 반영
- 다빈치5 가동률이 Xi 대비 약 11%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며, 향후 다빈치5 설치 가속화는 구조적인 가동률 상승을 이끌 것으로 기대
- 2026년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할 요인은 1)포스 피드백 기구 FDA 추가 승인에 따른 공급확대, 2)SP 스테이플러 미국 광범위 출시 완료와 한국, 유럽 출시 예정
- 주가는 경쟁심화 우려와 매크로 불확실성 등이 영향을 미치며 YTD -20%로 부진한 상황. 1분기 주요 실적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하고 2026년 수술증가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였으나 실적 발표 후 시간외거래에서 주가는 횡보 수준. 1)중국에서 경쟁심화와 입찰 관련 불확실성, 2)일본의 자본투자 부진 등 우려 요인이 상존하고 있고 경영진도 이를 반영하여 가이던스를 여전히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 안정적인 다빈치5로의 전환과 추가적인 성장 요인을 고려하면 업사이드는 높다고 판단. 다만 경쟁심화 환경에 대한 투자자 우려를 해소시키는 지표가 확인되기까지는 주가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서비스나우

상장 국가
미국
산업
소프트웨어
시가총액(십억달러)
89

최근 주가 추이



서비스나우(NOW.US): 확인이 필요한 과도기

중동 분쟁과 계절성 영향으로 2분기 가이던스 기대치 하회

- 서비스나우는 AI 대체 위협에 대한 우려로 주가 부진을 크게 겪고 있는 대표 SaaS 종목. 1Q26 실적은 투자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확신을 주기에는 다소 부족한 결과
- 2026년 AI 매출 전망치를 기존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50% 상향조정하고 대형 계약 체결 등 AI 관련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이나 구독매출과 CRPO 등 전사 외형 지표 상회 폭이 이전 추이에 미치지 못했음. 1분기 구독매출은 고정환율(CC) 기준 YoY 19% 성장,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했으며 CRPO는 21% 증가하며 가이던스를 100bps 상회
- 2분기 구독매출과 CRPO 성장 가이던스는 각각 21.5%, 19.5%로 컨센을 소폭 상회했으나, Armis 인수효과(125bps)를 제외하면 시장 예상치(각각 20%, 19%)를 하회.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계약 타이밍과 계절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산정으로 이해되나 자체성장 추이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줄이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

M&A 영향으로 2026년 구독매출 가이던스 상향조정, 수익성 지표는 하향

- 1분기 구독 매출 36.7억 달러(+22% YoY)로 CC기준 19% 증가하며 가이던스 상단에 부합. 중동 분쟁으로 대형 온프레미스 계약 지연이 약 75bps 부정적 영향을 미침. CRPO는 126.4억 달러로 21% 증가, 가이던스를 100bps 초과. 투자자 기대치는 가이던스 대비 약 150~250bps 상회 수준
- 조정 OPM은 32%로 가이던스를 50bps 앞섰으며 FCF마진은 44%를 기록. 순신규 ACV 기준 5백만 달러 이상의 대형 계약 16건, 1천만 달러 이상은 5건을 체결, 대형계약 체결 추이가 긍정적. 1.5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신규 계약 체결을 포함, 신규 고객 ACV 성장이 전년동기대비 50% 이상으로 가속화
- 2026년 연간 구독매출 성장 가이던스를 20.5%~21%로 상향조정. Armis 인수 효과를 제외할 경우 구독매출 연간 가이던스는 유지 수준. Armis 인수 영향으로 GPM과 OPM 가이던스를 81.5%, 31.5%로 각각 25bps, 75bps 하향 조정. FCF 마진은 35%로 200bps 내려서 제시. 인수로 인한 마진 훼손은 2026년말까지 마무리되고 2027년부터는 마진 확장 궤도로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

2026년 AI 매출 가이던스 10억에서 15억으로 상향

- AI 지표는 상당히 고무적. Now Assist 순신규 ACV 성장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으며 백만 달러 이상 지출 고객수가 130% 증가했으며 백만 달러 이상 계약건수는 30% 늘어남
- 인수한 Moveworks는 1분기에만 작년 한 해 전체 계약수를 초과, 유통채널이 큰 서비스나우와의 통합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5월4일 2026 Financial Analyst Day에서 중장기 전망치를 업데이트하고 AI 최신 역량을 시연할 예정

AI/플랫폼

알파벳(GOOGL.US): Gemini in Chrome 한국 포함 APAC 7개국 확장

- 구글이 4월 20일 자사 Gemini in Chrome 기능을 호주·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싱가포르·한국·베트남 등 APAC 7개국에 추가 배포한다고 발표. 1월 미국 첫 출시 및 3월 인도·캐나다·뉴질랜드 확장에 이은 공격적 글로벌 롤아웃 지속

마이크로소프트(MSFT.US): 첫 자발적 조기퇴직 프로그램 도입

- 1975년 창사 이래 최초로 미국 임직원 대상 일회성 voluntary retirement program을 도입. 나이와 근속연수 합산 70 이상(rule-of-70)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직원 중 약 7% 규모. 즉 미국 전체 125,000명 중 약 8,750명이 대상에 포함될 전망. 세부 패키지는 5월 7일 공개되며 30일 결정 기간 부여

아마존(AMZN.US): GLP-1 관리 프로그램 출시

- 아마존이 자회사 One Medical을 축으로 GLP-1 체중 관리 프로그램을 미국 전국 단위로 공식 출시. 200개 이상의 One Medical 오프라인 클리닉과 24/7 텔레헬스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 구조로 묶어 '만성질환으로서의 비만(obesity as chronic condition)' 관리 모델을 제시

메타(META.US): 전체 인력 10%·8천 명 감원 단행

- 전체 인력의 약 10%에 해당하는 8,000명 규모 감원을 5월 20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동시에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6,000개 포지션의 신규 채용도 중단

팔란티어(PLTR.US): USDA와 3억 달러 BPA 체결

- 미국 농무부(USDA)와 3억 달러 규모의 Blanket Purchase Agreement(BPA)를 체결하며 National Farm Security Action Plan(NFSAP) 이행을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 공급자로 낙점
- 이번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닌 단독 수의계약(no-bid) 형태로 부여됐으며, USDA는 필요한 연방 인증·데이터 모델·시스템 연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유일 벤더로 팔란티어를 지목
- 핵심 과제는 Palantir Foundry를 기반으로 Farm Service Agency(FSA)·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NRCS)·Risk Management Agency(RMA)의 분산된 레거시 시스템을 2028년까지 단일 디지털 환경으로 통합해 'One Farmer, One File'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는 것. 이를 통해 미국 농지 보호, 공급망 회복력 강화, 농업 보조 프로그램 대상 사기·해외 적성국 영향력 차단이라는 안보적 목표 달성이 주된 목적

오픈AI(비상장): GPT-5.5 공개

- 4월 23일 신규 플래그십 모델 GPT-5.5를 공개, 공동창업자 겸 사장 Greg Brockman은 “더 빠르고 날카로운 추론을 더 적은 토큰으로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GPT-5.4 대비 단위 경제성 개선을 부각 시킴

앤스로픽(비상장): 앤스로픽-트럼프 행정부 관계 해빙 조짐

- 앤스로픽이 펜타곤으로부터 외국 적대국에 주로 부과되는 supply-chain risk 지정을 받아 법정 대응 중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과의 직접 소통 채널이 오히려 강화
- 4월 17일 CEO 다리오 아모데이가 스콧 베센트와 회동. 백악관은 이를 첫 상견례 성격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만남으로 규정했고 앤스로픽 역시 사이버보안·미국 AI 리더십·AI 안전이라는 세 가지 공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였음을 공식 확인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김재임, 김시현)는 2026년 4월 24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